

광주 싱크홀 주 원인 하수시설...노후 심각

107건 중 69건...영산강·광주천 인근 지반침하 취약

지하시설물 노후화...20년 경과 하수도 3006km

광주지역 지반침하(싱크홀) 원인의 절반 이상이 하수시설 손상에 기인하며, 지하시설물의 노후화가 싱크홀 증가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박필순 광주시의원(광산구3)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20~2024년) 광주에서 발생한 싱크홀 107건

중 69건(64.4%)이 하수시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역대 최장 기간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55건의 하수관 유발 싱크홀이 발생했다.

광주는 지하시설물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상수도는 총 연장 4117km 중 2186km(53%)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며, 30년 이상은 805km(19.5%)에 달한다.

하수도는 총 연장 4570km 중 3006km(66%)가 20년 이상 노후했다.

지반 특성도 싱크홀 발생에 취약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반층이 주를 이루는 기저지반 외에도 영산강과 광주천 인근은 실트·모래·자갈 등 불균질 지층이 분포해 지반 침하에 취약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중점 과제 중 하나는 지자체 중심의 지하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이라며 "광주는 도시

철도 2호선, 항후 광천상무선 같은 대규모 지하공사가 병행되는 만큼 광주시가 지하안전 관리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수시설은 싱크홀 단일 원인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장기적 플랜에 따라 집중 점검 후 구조개선을 서두르고, 대형 사고 원인이 되는 지하공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며 "단기 복구 위주의 대응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도시안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달빛철도 예타면제 확정 촉구 공동성명 발표

강기정 시장과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광주·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5월은 전남 방문의 달...숙소·관광지 '반값'

도, 빅3 반값 할인·특별상품 등 관광객 유치 올인

전남도가 관광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5월 한 달을 '전남 방문의 달'로 정하고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전남도는 이 기간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특별관광상품을 운영해 봄철 행락객과 '가정의 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여행비 부담을 반값 수준으로 떨어주기 위한 5월 빅(BIG) 3 특별 할인혜택을 마련했다. 숙박업소 이용료 50% 할인, 위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숙박 시설과 사무실 이용료 등 50% 할인, 주요 관광지와 체험시설 입장료 등 파격할인 혜택 등이다.

전남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특별 여행상품·코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남도의 맛과 포근함을 만끽할 미식·힐링·감성 여행상품으로 ▲남도 미식로드 탐방 ▲남도정원 산책 ▲남도 고택·천년사찰 체험 ▲남도 힐링·웰니스 패키지 투어 ▲'가고 싶은 섬' 기차 여행 ▲크루즈 섬 여행 ▲한강노벨상 문학기행 등을 운영한다.

젊은 층과 유튜브버들이 선호하는 빵지 순례(빵·디저트 카페 핫플 탐방), 스크린 핫플 투어(영화·드라마·예능에 소개된 명소탐방), 익스트림 투어 등 트랜드상품도 운영해 마니아들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5월에는 매력적인 관광상품과 함께 전남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 의대·AI·우주 등 대선공약 반영 요청

김영록 지사, 이재명 캠프에 지역현안 요청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23일 국회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 유후덕 정책본부장과 김영진 정무전략본부장 등을 만나 주요 현안과 발전 전략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비롯해 AI·우주·에너지 등 미래산업과 연계된 핵심 사업을 소개하며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전남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건의 과제는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추진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우주발사체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 등이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국회의원 등을 만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재난 분야 현안 사업이 추가 반영되도록 건의했다.

전남도는 '대선공약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TF는 박창환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15개 실국장 이 참여하며 ▲신성장동력 ▲핵심 SOC ▲미래농어업 ▲관광·문화·휴양 ▲인구·복지 등 5개 정책 분과로 구성됐다.

/김효 기자

풍암호수 6월부터 폐쇄...명품공원 추진

수질개선...2027년 10월까지 공사

광주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했던 풍암호수공원이 6월부터 폐쇄된 뒤 수질 개선을 거쳐 명품공원으로 재탄생한다.

23일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 개발에 따르면 풍암호수공원이 중앙근린공원 사업에 포함돼 수질 개선 등의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시민 통행이 제한된다.

풍암호수공원은 1956년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됐지만 도심 개발로 인해 수질이 악화됐으며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수질 개선은 현재의 5급수를 3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11만9814㎡ 규모의 담수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자연형 정화시설과 물순환 장치 등이 설치되며 산책로와 호수를 분리해 오염원을 차단한다.

이 밖에도 풍암호 주변 산책로와 백사장, 전망 카페, 야외음악당, 음악분수, 어린이 물놀이 시설, 경관 조망 등이 설치된다.

풍암호수 인근의 숲은 8개의 테마숲으로 조성된다.

전남지역의 향토수종을 중심으로 조형미·예술성을 앞세운 '어울림 숲'과 청년들의 자유로운 창작 등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의 숲', 풍욕장과 캠핑장을 담은 도심속 힐링 공간 '치유의 숲' 등으로 구성된다.

또 도시환경 고민과 생태계 재구축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족의 숲', 중앙공원 곳곳에 조성된 장미정원을 개·보수해 정원·채형형 장미원으로 바꾸고 스포츠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활력의 숲', 광주·전남의 오래된 이야기를 간직하는 '예향의 숲'이 조성된다.

/김도기 기자

광주 평촌마을, 무등산권 지오빌리지 지정

생태관광 협력·관광객 편의 제공

광주시는 평촌마을을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오빌리지'(Geo-Village)로 지정하고 생태관광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오빌리지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내 지질·생태·문화적 특성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지질관광을 제공하는 마을이다.

광주시와 평촌마을은 협약을 통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브랜드 가치 상승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편

의 제공과 홍보 활동을 벌이며 평촌마을은 생태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무등산 북쪽 자락에 위치한 평촌마을은 동림, 우성, 담안, 담피 등 4개 마을로 형성된 한적한 농촌마을이다.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지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9월에는 이달의 생태관광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과 국립공원마을로도 지정됐다.

/조선주 기자

광주 우수정책 선발 9개월 대장정

시민 참여 확대

광주시민이 우수정책을 선발하고 심사하는 '2025년 정책평가박람회'가 9개월 동안 진행된다.

광주시는 '정책평가박람회'의 시작을 알리는 '스타후보정책 선정 온라인 설문조사'를 24일부터 30일까지 광주온(ON) 시민소통 플랫폼과 기관 행정포털에서 각각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설문 정책은 편리한 도시(교통·안전) 12건, 플랫폼도시(관

광·문화·체육) 16건, 돌봄도시(복지·돌봄) 13건, 활력도시(산업·경제) 13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교육·청년) 11건 등 5대 분야별 주요 정책 65건이다.

설문조사 참여자는 실·국에서 제출된 65건의 정책을 분야별로 2개씩 총 10개를 선택하면 된다.

광주시는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라 분야별 6~7건씩 총 30여개의 '스타 후보정책'을 선정할 계획이다.

/조선주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